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신 강철의 령장 김정일대원수님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전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90(2001)년 8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에서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1(1992)년 4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94(2005)년 5월



땅크병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72(1983)년 4월



최전연에 위치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7(1998)년 11월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95(2006)년 4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5(1996)년 3월



공화국영웅 길영조비행사의 학습장들과 자작지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5(1996)년 2월



군인들의 정치심화진행 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9(2000)년 7월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무기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 86(1997)년 6월

성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라!

전 선선이 달아올랐다.
무적의 흥건 번득이는 천리방선
전호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불덩이
같이 달았다.

지적에 도사린 적초소를 멸적의
조선경안에 짚어 넣은 영웅의 고지
1 2 1 고지 고위병들이 복수의 피
를 끓이게 이렇게 웨친다.

밤낮으로 젖어대는 놈들의 개
나발에 이가 갈려 못 참겠다. 이서
빨리 명중포를 펴듯이 사격명령을
내려달라!

이미 공격 출발구역을 차지한 전선
부대 장병들이 앞을 다투어 경에 하는
회고 사령관통지께 드리는 맹세문에
서명하고자 한다.

…총 대마다 서리발치는
복수의 맹세를 만장악한 우리들은 적
들의 대북십리전수단들은 물론 침략
의 본거지들을 다지고 다져온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회력타격으
로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퍼
부어 훈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겠습
니다…»

어찌 전선만이라. 온 나라가 중요
의 불덩이이다.

미친 놈들, 감히 어디다 대고!

놈들을 아예 죽탕쳐버리자!

이번 기회에 놈들을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안아오자!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토로한다.

못 더 쏟 충분한 기습에 제워 암고
최후전결의 시작을 품에도 기다리는
백발의 전령로에 부터 신천의
백들어린이의 복수를 다짐하는 글발
을 또박또박 일기장에 적어가는 나
어린 소년단원에 이르기까지 이 광
천만군민이 간악한 원쑤들과의 최후
전결을, 그로 하여 맞이하게 될 환희
에 한 최후승리의 그날을 바라고 또
바란다.

전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로 이어가자!

이것이 이 광장을 휩싸운 8월의
열기이고 의지이다. 바로 이것이 천
민의 심장에 하나로 고통치는 철의
신념이며 억척의 맹세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의 위엄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
입니다.》

이 광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
부터 장장 6 0여년, 우리는 침으로
아프고 시련에 친 날과 달들을 살아
왔다.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이해의
8월에도 경축의 밤하늘과 오르는
축포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아픔
을 생각했고 저 축포가 어서빨리 최

후승리의 축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놈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

북두산제의 럭사를 새롭게 쐐나가

자는 우리의 제의에 도전하여 놈들을

새해 정초부터 그 무슨 《인천문

제》를 떠들며 북두산제파란의 일로

미친듯이 내달았다. 한겨울의 얼

음이 채 풀리기도 전에 《키리풀보

》，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소동

의 불장난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

였고 지난 8월 1 7일부터는 우리

를 겨냥한 위험천만한 혁전방면승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활동군사연

습을 강행하였다. 그에 앞서 의문의

《지뢰폭탄》 사건을 등등에 전선에

서 남조선피리군부강제들의 대북심리

전방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청

을 돌구어내 사설과 인간쓰레기로

무어진 악질반동단체들의 대북비라

살포작전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

경에까지 이룬 사실도 우리는 날날

제 계산하고 있다.

사상 최대의 정치 군사적 도발이

였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놈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불장난을 저질렀다.

지난 8월 2 0일, 있지도 않은

《북포란발사》 사건을 구실로 신성

한 우리 공화국영토에 수십발의 포

탄을 판사한 피리군부호전광들의 무

모한 군사적 당돌, 어찌 산천초목이

치를 떨지 않으며 이 나라 천만군민이

복수의 통종을 으스러지게 풀어

잡지 않으랴.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가면을 뒤집

어쓰고있던 악착하고 음흉한 원쑤가

드디어 면사포를 벗어던지고 침략

으로 무자비한 반격에 부딪쳐

벌써 산신포각나고 있다.

전 선부대 둘 이 경에 해하는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발동에

즉시에 전시상태로 이전하고 온 나라

가 멍렬의 기상으로 만장연된 조

선의 현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착하고 간악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전쟁책들의 산물이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없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화

대회의 소식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의 포탄, 이것은 또 하나의 전쟁도발

행위이다. 우리에 대한 탄핵한 전쟁

이며 로哌적인 침략행위이다. 그 무

으로 번역할 수 있고 어떤 계

과 편모술수도로 가리울 수 없는 악

적들의 무모한 도발광기는 값비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끓어번지는 원쑤격멸의 의지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선선호전쟁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준비들을 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범위로 벌리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그대로 싸우는 전선으로 화였다.

21일 애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일터로 달려나온 공장임원들과 로동계급이 원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터치였다.

전쟁경계에 물어가는 원쑤들이

게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전시생



여기는 나라의 대규모석탄생산기지 2.8직동청년탄광이다.

민족의 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물어오는 승냥이무리를들은 지구상에서 씨름자 하나 남김이 없이 모조리 초토화해버리자.

분노의 절규가 직동전역을 진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겁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끌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

며 강력한 자위적정책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순간도 지체없이 조국수호의 최전방으로 달려나가 쌓아고 쌓았던 원활을 떠버리려는 단부들의 불같은 목소리를 비난하는 그 말치는 속에 탄광의 지하마장에 위치 한 천지구획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긴급집회가 열리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실장에 새겨안고 『마지막생명을 다하여 우리 촌토를 수호

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생산돌격전

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방송원의 격동 목소리가 공장구내를 들었다놓으며 울려퍼지고 기동에 출신동대원들이 부르는 전시가요가 생산자들의 풍랑으로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천생신의 첫 풍성을 담당한 방직종합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기세가 만져만이 아니었다.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눈앞에 두고있는 이곳 종합직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이첨작업조직모임에 참가한 초급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여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처날뛰는 원쑤들을 보기 좋게 후려

잡기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다렸다.

두고있는 이곳 종합직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보도에 접하고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이첨작업조직모임에 참가한 초급일군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여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처날뛰는 원쑤들을 보기 좋게 후려

잡기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다렸다.

생산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원쑤들의

도발을 짓뭉개버리며 물격으로 뛰어

나가는 1 직포직장에서 혁신자들이 많이 출근되고 있다. 광장으로

도 혁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단위

로 알려져 있는 직장에서는 현재 7명의 직포공, 수리공들이 2년분에

획득을 완수하였다.

방직, 직포단원이 아닌 온공장이

그대로 싸우는 전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 주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문불구로 로고로 풀무원의 주제로 풀무원을 탐구하면서 두루, 세월의 일감을 맡아보면서 2년분에

획득을 완수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누구나 합리적 인

순회방법, 작업방

법을 탐구하면서

두루, 세월의 일감을

맡아 해제끼고

있다.

직포종합직장에서도 직포공들이

원쑤들의 어성에

불벼락을 퍼붓는

심정으로 직기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들이 헌연폭풍, 현속발파의 통음을 높이 울린다.

수행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케들었다.

채한중대들에서 한의 석탄이 라도 더 캐내기 위한 줄기찬 전투를 벌릴 때 광전막장들은 석탄사의 각으로 만장약된 굴진공

</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국제사회가 강력히 요구

우리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종한 단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제와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은 국제 사회계의 강력한 규탄을 자아내고 있다.

로마니아 사회주의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최근 미국의 대조선적대 시책 등은 최철정에 달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침략에 대한 경색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네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남조선당국과 합작으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으며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영국의 전보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남조선피리들의 군사연습은 보다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지난 시기 연습들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깎았다.

세계에 조선처럼 60여년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으며 그 어느 나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의 1인 800여회의 각종 침략전쟁연습위협을 받아보지 못하였다.

약기들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조선을 침략하고 『북의 정권교체』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명백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로씨 아련방공산당 브루즈진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미사일의 인사들은 남조선당국자에게 보낸 항의편지에서 미제침

략자들과 남조선군이 해마다 조선반도에서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면서 인민들을 통제하는 길로 내몰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남조선당국자는 역사의 흐름에 맞게 처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제사상연구소는 성명에서 조선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참례를 막았던 미국은 오늘도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경에 하는 김정은 각자의 비범한 신군학령으로 조선반도에 강제로 청진역제력을 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반제반민대결 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 인민들에게 전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정세를 간섭하고 북남관계는 전쟁집경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제반 사설은 조선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 단죄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 제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을 통하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범죄적인 성격을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단죄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은 이전 시기에 진행된 다른 군사연습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해상 타격 연습이다.

특별히 임종한 것은 적대세력들이 이 범죄적이고 침략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을 조선해방 70돐이 갖 지난 후에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떡자식에 아는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대성위원회는 남조선전쟁평화를 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말것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정세를 전쟁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민주군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로씨 아진문 『나호드겐스끼리보치』는 불을 즐기는 자들은 반대하는 미 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지도방법으로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으며 남조선군부호전평들은 외세의 비호밀에 있지도 않다.

『도발』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도로 포사각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강행하였다.

조선된 정세에 대처하여 김정은 평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압이 가능한 한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할 것을 명령하시였다.

우리는 미 국과 남조선당국의 위협천만한 불장난소통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에 따라 언제든지 적과 싸울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악화되는 정세를 파악하는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폭로 단죄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 평도자와 함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압이 가능 한 한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할 것을 강제로 했다.

역사는 조선이 절대로 빙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 평도자와 함께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압이 가능 한 한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할 것을 명령하시였다.

우리는 미 국과 남조선당국의 위협천만한 불장난소통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에 따라 언제든지 적과 싸울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남조선피리들이 매일과 같이 간접하고 있는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포함으로 거부하고 외세와 아합하여 북침전쟁도발의 기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자 베풀수 없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규탄하였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피리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파수령을 위하여, 괴로워하는 전쟁평신자들이 있는 이상이 땅의 평화는 시한판을 암고기이며 우리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하여 그 어떤 편용이나 자비를 베풀수 없다.

우리 인민의 선례는 일단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들판한 배심두산국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성세가 있고 위해 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다져주신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다!

이러한 크나큰 자부심이 낳은 당한 선례이다.

우리의 선례는 전제 인민의 양양정신의 산물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남조선피리군부강제들은 머지 않아 뼈에 사무시게 새기게 될 것이다.

일단 백두산대국을 건드린 이상 격노한 민심을 절대로 잡아둘수 없으며 자기의 무분별하고 경솔한 도발정책의 대가를 천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전전승의 강철의 망장이 신위한 수령님의 평도파라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

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해 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엄숙한 선언

을 깊이 침입시켜 엄중한 정탐행위를 강행하였다. 조국의 하늘을 맑음직하게 지키고자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군대와 인민은 전제군의 대형 간첩비행기를 단방에 쇄멸하는 빛나는 전파를 물리쳤다.

도발자들의 말로는 판문점사진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제군대는 1976년 8월 18일 도끼를 가진 불한당들을 물어버려 판문점경비구역 안에 있는 나무를 마구 찍으려고 하였다. 우리측 경비원들은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나무이므로 쟁방이 합의를 보지 않고서는 죽을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놀들은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응할 대신 수직우세를 밟고 흥미를 휘두르면서 짐승처럼 미군부강제들이 이번에 또다시 무관한 군사적망동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단순한 리치도 모른 미치광이들이 남조선피리 군부강제들이 이번에 도발을 걸었다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었다가 불만당질을 당한 양평도사건을 비롯하여 세월을 이어가며 악랄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특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아온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대성위원회는 남조선전쟁평화를 뒤흔들고 있다.

남조선피리들은 경지망동하지 말라.

* * *

주체사상연구 로마니아전국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조선전쟁평화를 재개함으로써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증지할것을 피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북사이의 전보령대는 성명을 통해 남북사이에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하면서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이 심리전방송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남조선당국이 『지뢰폭발』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주체사상연구 로마니아전국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조선전쟁평화를 재개함으로써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이 심리전방송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북을 자극하는 심리전방송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북사이에 단체들은 비무력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뜻으로써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국은 군사분야에서의

무력충돌을 차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

동족대결의 참화를 몰아오는 역적의 무리들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최후결전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미국상장을 등에 업고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기어이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피리역적파당의 발팡이 위험계선을 넘어서졌다. 모략적인 「지뢰 폭발」사건을 코에 걸고 전 전선에서 반공화국심리로 랙방총을 세기 하며 빠라살포망동을 일삼던 가증스러운 원쑤들이 마침내 전쟁의 불꽃을 탐방하는 최악의 도발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발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실로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털사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부린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면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피눈이 되어 미처날뛰는 이 더러운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우리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다. 말로 하면 때는 이미 지나갔다. 드디어 판가리성전의 시작이 왔다.

페리를 물고 던벼드는 원쑤들을 겸단코 요정내고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자. 활화산에서 뿐어나오는 거세한 용암마성 선군의 힘, 천만군민의 힘의 지가 드세하게 분출하는 가운데 백두의 희성이 천하를 울리었다.

조선인민군 전선에 련합부대들이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한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로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온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의 기상은 천하를 뒤흔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약 적들이 역사의 법칙적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모두한 도발을 또다시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적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맹명의 무력으로 물어보내겠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쑤들의 본거지들을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토초화하고 칠풍노도같이 점령 할 임당백사조들의

만장약된 결사정신으로 전 전선이 세차게 훑어번지고 있다.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들에게 차비한 절대로 있을수 없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것을 실로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 수십발의 포탄을 털사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부린 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면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피눈이 되어 미처날뛰는 이 더러운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

우리의 최후결전은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쟁취부리들에 들어내고 광고한 평화를 알아오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 적들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 대응해 줄수 있게 준비되었고 한반의 싸움으로 적들을 폐멸시킬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작전도 마련되어있다.

모든 타격수단들이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것이다.

우리가 수십년세월 헌터리를 조이며 이 땅에 쌓아올린 선군의 성세는 평화를 위한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고吼하고

시상의 대결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한 우리 천민군민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할수 없다.

우리가 수십년세월 헌터리를 조이며 이 땅에 쌓아올린 선군의 성세는 평화를 위한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고吼하고

시상의 대결이다.

우리의 힘은 그 어떤 형세의 힘을 높이 모시고 하나님의 신념으로 굳게 통진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는 진리를 오늘의 조선은 다시금 깊이 있게 표시하고있다.

전쟁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 힘의 대결만이 아니다.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다.

우리의 최후결전은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쟁취부리들에 들어내고 광고한 평화를 알아오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 적들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 대응해 줄수 있게 준비되었고 한반의 싸움으로 적들을 폐멸시킬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작전도 마련되어있다.

모든 타격수단들이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것이다.

우리의 배두산혁명강군은 천출명장들

의 손길이에 설한 풍랑서에서의 피어린 우

여전과 력행상 대비도 안되는 제국주의

변함세력파의 간고한 정규전, 수십년세

월의 흥포성없는 대결결은 벌여오면서

오직 승리만을 품은 최종에 군대이며

상용무기의 의한 국지전이나 전면전쟁,

전자전과 핵전쟁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대결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강

력한 타격수단들과 평승의 전법을 완비

한 무적의 강군이다.

이번 만일 죽여 놔도 원쑤를 치자면

항일혁명선열들의 떨직의 투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신이

휘몰이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이

병든 군대 아닌 군대는 애당초 백두산

지금은 나라는 인민들은 누구나 첫 표

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

면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고 서로서

고무려하며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

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인민이 총대를 들어잡고나갈 때 어떤 증

상 할것이다.

록암이 세질화되고 폐를 깨우고

병든 군대 아닌 군대는 애당초 백두산

지금은 나라는 첫 표

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

면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고 서로서

고무려하며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

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인민이 총대를 들어잡고나갈 때 어떤 증

상 할것이다.

록암이 세질화되고 폐를 깨우고

병든 군대 아닌 군대는 애당초 백두산

지금은 나라는 첫 표

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

면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고 서로서

고무려하며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

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인민이 총대를 들어잡고나갈 때 어떤 증

상 할것이다.

록암이 세질화되고 폐를 깨우고

병든 군대 아닌 군대는 애당초 백두산

지금은 나라는 첫 표

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

면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고 서로서

고무려하며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

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인민이 총대를 들어잡고나갈 때 어떤 증

상 할것이다.

록암이 세질화되고 폐를 깨우고

병든 군대 아닌 군대는 애당초 백두산

지금은 나라는 첫 표

성이 울리면, 최후성전의 신호탄이 오르

면 우리 모두 전선에서 만나고 서로서

고무려하며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

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

인민이 총대를 들어잡고나갈 때 어떤 증

상 할것이다.

불길속만리라도 숭고나 침략자

들의 본거지를 물리치고 있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국과 광대국간의 가장 치열한 대

결로, 선과 악의 쟁결판으로 될것이다.

단일 명령만 내려진다면 원쑤 미제와

가증스러운 폭력을 향기는 최악의 도발

을 걸어왔다. 피리호전팡들이 그 무슨 「북포탄

발사」를 통해 사방구석을

침략자들을 물리친다.